수시입출금 高금리 통장 출시
하루만 맡겨도 연1.2%이상
각종 수수료 완전 면제
산림조합금융 제주시 725-4883 서귀포시 762-4544

참간 30주년 since 1989
한라일보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 064)745-8884

漢拏日報 제8876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6월 7일 금요일(음력 5월 5일)

지역물류기본계획 주요 사업 '표류'

제주도, 2016년 지역물류정책 기본방향 설정
물류단지·항만공사·제주신항 등 중단·답보
"제주신항만 고시 이뤄지면 예타조사 등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6년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 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해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물류기본계획에 항만 배후부지가 없는 제주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의 물류단지 개발을 포함시켰다. 이는 무분별한 창고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물류시설 공급을 위한 차원이다. 제주항의 기타화물(컨테이너·자동화물 등)에 대한 물류단지 규모는 물류시설용지와 공공용지 기준으로 약 19만㎡를 예상하고, 5만~20만㎡ 규모 검토를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물류업체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제주항 배후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물류단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크루즈와 카페리 중심의 제주신항 개발계획도 제시했다. 제주신항 개발계획(2025년)은 항만기본계획(2020년)에 반영(제주신항 1단계 사업:크루즈선석과 여객부두 일부 2020년 이내 착공)을 주문했다. 제주 물류의 규격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컨테이너 전용부두 도입도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고시'에 제주외항 물류기지 정비 계획을 반영시키고 예비타당성조사 적기 시행 및 첨단 ICT기반 물류센터 구축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있으나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전국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제주신항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이다.

아울러 제주도 물류정책을 총괄하고 실행하는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도 담았다.

이에 제주도는 2017년 9월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내기도 했으나,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중국내 한류 금지령)으로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크루즈 입항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부 협의 등 모든 사업 논의가 멈춰진 상태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오는 7월에 2040년 완공을 목표로 한 제주신항 고시가 이뤄지면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항만 물동량은 2012년 1170만t에서 2017년 1858만t으로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모래 211만t, 유류 138만t, 시멘트 141만t, 비료 9만t, 감귤·채소 47만t, 기타 1310만t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국가 위해 희생한 분들께 의무 다할 것"
문 대통령, 6일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서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순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이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다"며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는 없다"며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이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밝혔던 제주국립묘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어제 현충일 추념식
제주 전역에 묵념 사이렌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제주시 충혼묘지와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등 제주 전역의 충혼묘지에서 일제히 거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장, 유공자·유족,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 본행사가 시작된 이날 오전 10시에는 1분간 제주 전역에서 묵념 사이렌이 울렸다.

추념식 참가자들은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훈을 되새겼다. 추념식은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모의 노래, 추념사, 헌시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원희룡 지사는 추념식에서 "오는 9월 제주국립묘지가 착공돼 1만기의 묘역이 조성된다"며 "그동안 충혼묘지에 안장할 수 없었던 참전유공자들을 모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참전수당을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에게 현충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며 "보훈회관 건립을 비롯한 보훈사업들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제주시 충혼묘지를 비롯해 도내 전역의 충혼묘지에서 일제히 거행됐다. 이날 충혼묘지를 찾은 유가족들이 헌화·분향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알 림
2019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하는 NIE공모전
▶공모기간: 2019년 10월 13일(일)
▶공모대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공모분야: NIE 학습활용 및 스크랩
▶형 식: 활동지(크기 자유) 10매 이상
▶시 상:
-개인 ▷대상 1명(상금 40만원) ▷금상 4명(각 20만원) ▷은상 4명(각 15만원) ▷동상 11명(각 10만원)
-단체 ▷대상 1팀(상금 40만원) ▷최우수 7팀(각 20만원) ▷우수 5팀(각 15만원)
-지도자 및 지도교사상: 1명 (교육감상 또는 한라일보 대표이사상, 상금 20만원)
※단체상은 일반 및 학교부문 응모. 단, 일반부문은 팀당 3명 제한, 학교는 반 또는 동아리. 부문별 출품작 수와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팀 부문 이중지원 안됩니다.)
▶접수처: 우편(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4층 편집국 NIE 공모전 담당앞) 또는 방문 접수
▶문 의: 010-2024-5692
※공모전 수상작 등을 선보일 전시회 기간 변경에 따라 부득이 공모마감일을 일주일(당초 10월20일에서 13일로) 앞당기게 됐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너른 양해부탁드립니다.